

<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>

축·수산물 PLS,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홍보부스 운영

- 축·수산물 PLS 제도 소개·체험을 통한 이해도 제고 및 안전관리 인식 확산 기대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 엑스코(EXCO)에서 개최되는 ‘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((사)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주관)’에 참가하여 축·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*('24.1.1.부터 시행)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

*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(Positive List System, PLS) :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(농약, 동물용의약품)에는 일률기준(0.01 mg/kg 이하)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

축·수산물에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으로 일률기준(0.01 mg/kg 이하)을 적용하는 제도다. 다소비 축산물(소, 돼지, 닭, 우유, 달걀)과 수산물(어류)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바 있으며('24.1.), 향후 우선 적용하는 축·수산물 이외에 양, 염소 갑각류 등까지 확대 예정이다.

식약처는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보다 쉽게 축·수산물 PLS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 코너를 운영하고, 지난 8월 공개된 축·수산물 PLS 홍보영상과 공모전* 수상작을 전시(쇼츠)한다. 또한,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OX 퀴즈이벤트 및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.

* '우리 모두의 식탁 안전을 지키는 축·수산물 PLS 덕분에 안심할 수 있는 당신의 이야기'를 주제로 사진과 스토리 공모('25.5월~6월)

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·홍보 활동을 통해 축·수산물 PLS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축·수산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식품기준기획관 유해물질기준과	책임자	과 장	박성관 (043-719-3851)
		담당자	연구관	김용무 (043-719-3852)



국민 안전이 기준입니다!
YOUR SAFETY IS OUR STANDARD

영원히 변치 않는
안심기준
PLS
당신의 밥상에
행복을 더합니다

PLS(Positive List System)는
우리말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!
알쏭달쏭~ PLS에 대해
저와 함께 파헤쳐 봐요!

식품의약품안전처

궁금해요 PLS

Q 축·수산물 PLS란 무엇인가요?

▶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
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외에는 일률기준(0.01 mg/kg)을 적용하여
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국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	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[별표 5]의 기준을 적용	일률기준(0.01mg/kg) 적용 단, 성장보조제,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

“일률기준(0.01 mg/kg)”은 독구장에 떨어진
지름 1cm 유리구슬이 차지하는 넓이와 같아요!
매우 적은 양인 거죠!

식품의약품안전처

궁금해요 PLS

**Q 축·수산물 PLS가 적용되는
대상을 알려주세요!**

▶ 현재 축·수산물 PLS는 주요축종인 소, 돼지, 닭, 우유, 달걀,
어류에 대해 적용되고 있어요.

▶ 추후 염소, 오리, 양, 갑각류 등 소수축종을 포함한 전체
축·수산물에 대해 PLS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추진 예정입니다.

1단계 : 주요축종 및 어류(24.1.1.)

소·우유 돼지 닭·달걀 어류

2단계 : 전체 축·수산물 등

염소 오리 양 갑각류 등

식품의약품안전처

기대돼요 PLS

Q 축·수산물 PLS, 왜 필요할까요?

동물용의약품 오·남용 방지(국내)

▶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·관리하여
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예방

**생산부터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
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가능!**

수입 축·수산물 안전관리 강화

▶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사용
확인시 수입 차단

▶ 해외 부적합 축·수산물 국내 수입·유통 방지

식품의약품안전처

안심돼요 PLS

Q 축·수산물 PLS,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!

PLS 제도 도입을 통해 축·수산물 안전관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

- ✓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대
- 시행 전('17): 기준설정물질(167종), 금지물질(17종)
- 시행 후('25): 기준설정물질(210종), 금지물질(29종)
- ✓ 수입 및 국내 유통 축·수산물의 잔류물질 검사 강화
- ✓ 많은 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(157종) 동시시험법 개발

축·수산물, 우리 밥상에 매일 오르는 식품이니까! 식약처가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!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안심돼요 PLS

Q 축·수산물 PLS,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!

국가별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현황



한국 (2025기준), CODEX (2024기준), 미국 / EU / 일본 (2023 기준)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지켜줘요 PLS

Q 동물용의약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?

농장에서 양식장에서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

- ✓ 정해진 성분의 용법·용량을 지켜주세요.
- ✓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않습니다.
- ✓ 휴약기간은 정해진 시간 그대로 지켜주세요.
· 휴약기간이란 약을 투여 후 식물, 말, 우유 등에 잔류물질이 허용기준 이하로 배분되는데 필요한 기간을 말해요
- ✓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없는 사료와 물만 급여해요.
- ✓ 사용내역을 꼭 기록하고 관리해 주세요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알아봐요 PLS

Q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축·수산물을 수입하는 분이러면!
수출국에서 사용 중인 동물용의약품이 국내에도 기준 설정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. 만약 기준이 없어 필요하다면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!



식품의약품안전처